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4.29.(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4.29.)

-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 -

외교부는 4.29.(월)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 연합(AU) 의장국으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 주재 예정

※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베냉 외교부 사무차관, 감비아 외교부 2차관, 기니비사우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등 13개국 본국 대표단과 31개국 주한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 총 아프리카 44개국에서 참석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 하였으며, 정상회의 의전·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담당 부서	아중동국 아프리카2과	책임자	심의관	정광용 (02-2100-7476)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 (02-2100-6926)